

광주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 공동현안 ‘한목소리’

‘동부권 상생협의회’ 출범…명칭·운영 규약 확정

권역 필수의로 확충·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이전과 항만, 필수의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청 동백실에서 서영학 여수시장을 비롯한 동부권 7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제2차 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제1차 간담회에서 협의회 설립에 뜻을 모은 7개 시·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의 명칭과 운영 규약을 확정하며 협의회 출범을 본격화했다.

이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동부권 우선 배치,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전문성 유지, 동부권 권역 필수의로 인프라 확충, 동부청사 위상·권한 강화, 국립순천대학

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건의 등 5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가 제안한 필수의로 인프라 확충 건의는 산업재해와 대형 재난 위험이 높고 도서·산간 지역의 응급이송 수요가 큰 동부권에 권역 필수 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7개 시·군은 주민의 생존권과 의료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동부권 의료기관 인력·시설 확충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등을 건의하고,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단계적 확충과 응급이송 수요를 고려한 신규 의료 인프라의 분산 배치를 특별시와 정부에 요청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동부권은 국가산단



최근 여수시청 동백실에서 여수시에서 건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권역 필수의로 인프라 확충을 협력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청

이 집적돼 있어 산업재해와 중증·응급의 수요가 높은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필수의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별

시와 정부의 지원을 협의회와 함께 이끌어 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의회 출범이 시·군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여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의 강점을 연계해 동부권의 상생발

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협력체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고흥물, 2026년산 햅쌀 예약판매 돌입한다

24일부터 순차 배송…농가 소득 증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온라인 쇼핑몰 ‘고흥물’을 통해 2026년산 햅쌀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예약판매는 올해 고흥에서 수확한 신선한 햅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산 햅쌀은 고흥지역 농가가 정

성껏 재배한 벼를 수확한 뒤 신속하게 건조·도정한 상품이다. 윤기가 풍부하고 밥알이 부드러우며, 갓 수확한 햅쌀 특유의 신선한 향과 찰진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예약 주문은 고흥물을 통해 진행된다. 군은 농협과 사전에 생산·출하 일정을 조율하고, 수확부터 건조·도정·포장·배송

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햅쌀의 신선도와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예약판매 기간 동안 고흥 햅쌀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무료배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 예약판매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약 구매한 상품은 수확과 도정을 마친 뒤 오는 24일부터 주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한 해의 첫 수확을 기다리는 소비자들께 2026년산 고흥 햅쌀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예약판매를 준비했다”며 “할인된 가격과 무료배송 혜택을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청정 고흥에서 갓 수확한 햅쌀의 신선하고 구수한 밥맛은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물은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쌀을 비롯해 유자, 석류, 마늘, 김, 미역, 수산물 등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순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시민 일상 회복 협력”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최근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주택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시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참여 건축사를 연계해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이후 피해 확인, 건축사 연계, 건축허가, 주택 신축까지 이르기까지 주택 복구 전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최근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순천지역건축사협회장 정재성 건축사, 손훈모 순천시청장,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손훈모 순천시장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복구와 따뜻한 연대다”며 “행정과 지역 건축사가

함께 만든 이번 협력체계가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전국 아마추어·장애인 e스포츠대회 유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최종 통과… 2027년 8월 개최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국내 최대 규모로 아마추어 e스포츠 축제인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KeG)’와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의 2027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지를 공모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온라인 질의응답 등을 거쳐 여수시를 e스포츠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풍부한 숙박·교통 인프라와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역량, 적극적인 유치 의지, 차별화된 e스포츠 활성화 정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사업비는 13억 2100만원 규모다.

내년 8월 제19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사)한국e스포츠협회 주관으로 여수진남실내체육관에서 2일간 개최되며, ‘제5회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대한장애인

체육회 주관으로 여수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두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등 4500여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숙박·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해양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여수시가 청년 문화와 디지털 스포츠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되도록 관광 연계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사순문 장흥군수는 최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에게 김명중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등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청

장흥,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국회·세종정부청사 방문…현안사업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최근 국회와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활동을 이어갔다.

18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순문 장흥군수는 최근 김명중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협업실정책실장을 만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등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군은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데 이어, 세종정부청사에서 사업별 추진 여건

과 기대효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앞으로도 정부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단계별로 관계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협의하며,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순문 군수는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정영수 기자 jms050311@

구례, 공약이행 평가단 공개 모집

21일까지 접수…무작위 추첨 7명 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민선 9기 공약사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행평가 위해 ‘민선9기 구례군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군민이 직접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군민 참여기구로,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공약 실천계획 변경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기간은 2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7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전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

상 군민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해 구례군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7명을 선발하고, 8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위촉된 평가단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0942@gwangnam.co.kr

곡성, 마을리더 역량 결집

소득 정책·마을 발전 방향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주민 접점에서 지역 변화를 이끄는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본소득 연계 마을리더 배움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 리더들의 지리적 접근성과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곡성읍, 옥과면, 석곡면 3개 권역으로 나눠 이틀간 순회 개최되었다. 각 권역별로 50여명씩 150여명의 마을리더가 참석해 기본소득 정책과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주민 중심의 자생력 있는 마을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리더십 강화에 주력했으며 선진 지자체 및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

노승복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과 구준희 순창군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 대표가 타 지자체의 기본소득 연계 및 주민조직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박진숙 사회적농업 전남광역거점 대표, 이영훈 전남사회서비스원 팀장, 한상근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장이 참여해 농촌형 통합돌봄과 복합사회서비스 실증모델, 곡성군 마을공동체 사업 방향을 다뤄 함께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경청과 높은 몰입을 끌어냈다.

군은 교육 현장에서 ‘기본소득 연계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다. 군은 향후 후속 계획으로 상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면 지역의 기본소득 시범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리더분들이 마을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